

# 仁川地域 傳統住居의 空間構造에 관한 調査·研究

- 1900年代 이후에 建築된 富平地域의 傳統家屋을 中心으로 -

洪世杓

(仁荷工業專門大學 建築科 助教授)

## 1. 序論

### 1-1. 地域의 概觀

仁川廣域市는 해방후 여러 차례에 걸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 1995년 5월 현재 면적954.58km<sup>2</sup>으로 우리 나라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다. 인구수는 2,208,000명으로 부산의 3,847,000명, 대구의 2,347,000명에 이어 세 번째이며, 인구밀도는 km<sup>2</sup>당 6,506.4명으로 부산의 7,243.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sup>1)</sup>

仁川의 行政體系는 인천광역시, 중구(13個洞, 1支所), 동구(14個洞), 남구(24個洞), 연수구(8個洞), 남동구(20個洞), 부평구(21個洞), 계양구(11個洞), 서구(16個洞, 1出張所), 강화군(13個邑·面, 1出張所), 용진군(7個面, 2出張所) 등 10個區·郡, 147個洞·面 및 5개 支所·出張所로 이루어져 있다. 복잡한 행정체제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은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행정구역을 형성하여 왔으며, 일시적으로 상호 속지로 편성되기도 하였다. 이런 특성으로 각 지역은 仁川文化圈, 開港場文化圈, 永宗文化圈, 富平文化圈, 江華文化圈, 蘆津文化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였으며, 또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였다.

부평문화권에 해당되는 부평지역은 三國時代부터 大韓帝國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시되던 곳이었다.

그 관할구역은 현 인천광역시의 서구, 부평구 및 계양구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시 전지역과 서울특별시내 속한 오류동, 궁동, 개봉동 등의 지역까지로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1914년 日帝에 의한 지방행정구역개편시 인천의 일부지역과 부평지역을 통합하여 경기도에 속한 富川郡을 설치함으로써 부평이라는 명칭은 洞名으로만 남게 된다. 1995년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기초자치단체의 이름으로 富平區가 등장한다.

### 1-2. 研究의 目的 및 背景

부평을 포함한 인천지역은 1883년 개항이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급격히 도시로 변모하여 많은 부분이 전통성을 잃게 되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연구도 또한 미미한 실정으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都市化가 지속될 경우 지역적 특성은 물론 변화의 과정을 상실한 채 거대도시로 변모할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부평지역의 자연부락에 있는 살림집을 연구하여,

1) 도시화 이전 仁川地域 살림집의 형태를 추정하고, 2)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變化된 住居空間의 特性을 정리함으로써, 3)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둔 都市計劃 및 住居空間計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데 있다.

1) 인천광역시, 통계로 본 인천경제의 현주소, 1995.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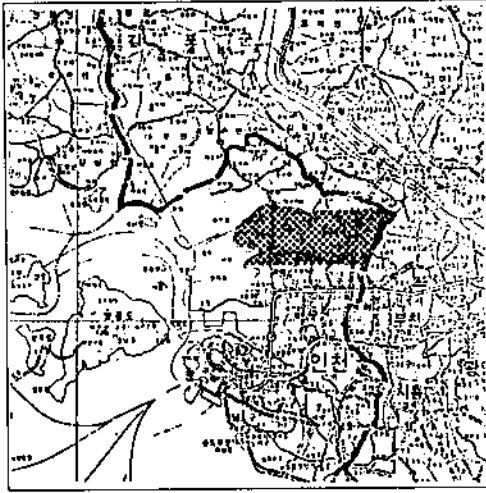


그림 1. 인천광역시 및 조사지역의 범위

### 1-3. 調査 및 研究方法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仁川廣域市 富平區, 桂陽區, 西區이다. 1970년대 이후에 건축된 살림집은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된 새마을사업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평면에서 벗어나 있으며, 조사결과 부평지역에 현존하는 전통적 특성을 갖는 살림집이 1960년대 이전에 건축된 것에 근거하여 시간적 범위는 1900년대부터 1960년대로 한정하였다.

주거공간의 평면유형화 방법은 마당, 사랑채, 안마당, 뒷마당의 공간적 배치형식과 살림집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sup>2)</sup>와 실측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평면형태를 유형화하고 주거공간의 면적규모 및 구성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개축의 형태를 정리하여 생활 및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이루어진 주거공간의 변화를 살폈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는 “掘浦川放水路建設區間地表面調査報告書”<sup>3)</sup>, “桂山宅地開發事業地區地表面調査報告書”<sup>4)</sup> 및 “新空港高速道路文化遺蹟地表面調査報告書”<sup>5)</sup>에 수록된 내용 및 평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보완조사들 통해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평면유형 및 변화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살림집을 중심으로 선정

표 1. 조사대상 목록

평면형태	건축년대	평면유형	소재지
■ 자형	1930년대	일부변형	인천시 계양구 독실동 78-69
ㄱ자형	1930년대	"	인천시 서구 시천동 104-1
	1950년대	원형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30
ㄴ자형	1930년대	일부변형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113-1
	1950년대	"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251-20
ㄷ자형	1900년대	원형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80
	1900년대	일부변형	인천시 서구 시천동 57-3
	1932년	"	인천시 서구 검암동 199
	1935년	"	인천시 서구 시천동 56
	1943년	"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26-17
	1949년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9
□ 자형	1920년대	"	인천시 서구 시천동 56-1
	1920년대	"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99

\* 건축연대는 상량문을 근거로 하였으며, 상량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 및 인근 주민의 증언과 기억을 바탕으로 하였다.

했으며, 실측조사는 현재 주거공간의 규모, 용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원래의 형태, 규모 및 용도는 거주자의 증언에 근거하여 변화과정을 제시하였다.

## 2. 富平地域의 살림집

### 2-1. 概要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살림집은 전체 97동이다. 계양구 독실동에 11동 서운동 18동 용종동 7동 목상동 25동 계산동 14동 서구 시천동 15동 검암동 7동을 조사하였으나, 이 가운데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13동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세부목록은 <표 1>과 같다. 이를 평면형태로 구분하면 ■ 자형 1채, ㄱ자형 2채, ㄴ자형 2채, ㄷ자형 6채, □ 자

3) 인하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pp.138~140, 1993  
 4) 인하대학교 박물관·인천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 pp. 132~145, 1994.  
 5) 인하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pp.185~210, 1994

2) 홍형욱, 한국주거사, 민음사, pp.190~225,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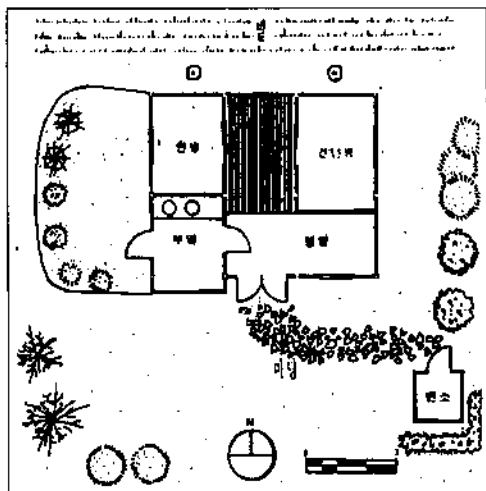


그림 2. ■자 평면유형

형 2차이며, 건축년대는 190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폭 넓게 분포되어 있다.

주거공간의 평면은 전체의 76.9%정도가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중·개축에 의해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주거공간을 건축 당시의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집은 발견할 수 없었다.

## 2-2. 富平地域 살림집의 平面 類型別 特徵

### 1) ■ 자형

■ 형태의 공간배치로 마당, 본채, 뒷마당으로 구성된 기본적인 평면분화를 이루고 있으며, 평면구성은 봉당, 부엌, 마루, 방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평면은 전체적으로 불 때 북부 및 산간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겹집형태이나 마루를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배치되었으며 안방 앞에 부엌을 배치하고 건넌방 앞 봉당에 아궁이를 둔 것은 다른 지방의 겹집과 차이를 보인다.<sup>6)</sup>

### 2) ㄱ자형

ㄱ자형태의 공간배치로 바깥마당, 안마당, 본채, 뒷마당으로 이루어지며 평면구성은 마루, 안방, 건넌방, 부엌으로 형성된다. 바깥마당은 텃밭이나 논과 연결되어 생산공간과 주거공간의 완충역할을 겸한다.

6) 일반적으로 북부지방의 겹집은 부엌-(마루)-정지-방(田자형으로 배치)의 순서 배열되어 마루가 각 실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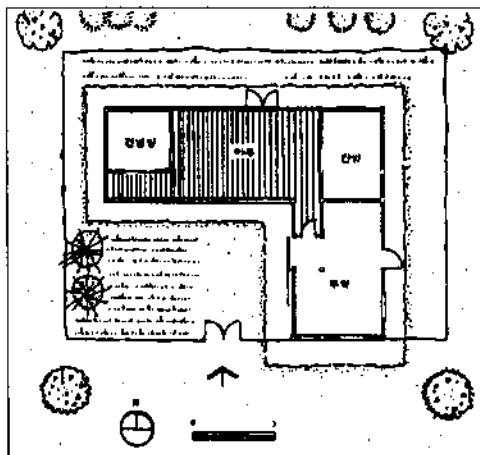


그림 3. ㄱ자 평면유형

안마당은 주거공간내의 생활공간으로 우물이나 수도 시설이 갖추어진다.

### 3) ㄷ자형

ㄷ자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은 다음에 기술하고자 하는 □형과 유사하나 별도의 대문간을 두지 않고 울타리 사이에 대문을 설치하는 점에 차이가 나타난다. 공간배치는 바깥마당, 안마당, 본채 및 뒷마당으로 이루어지며, 평면구성은 ㄱ자형 평면에서 건넌방 앞에 사랑방이나 광을 달아낸 정도의 차이만 나타나는 정도이며 이로 인해 안마당은 상당히 좁게 된다.

### 4) ㄱㄴ자형

부평지역 자연부락에 현존하는 살림집평면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공간구성은 바깥마당, 사랑채, 안채 및 뒤 울안으로 연결되어 구성된다. 사랑채는 대문간을 중심으로 큰 사랑방, 작은 사랑방, 외양간, 광 등의 공간이 주변여건에 따라 배치되며 안채는 ㄱ자형 평면의 배치와 같다. 다른 평면유형의 경우와 달리 안마당 일부에 화단이 있는데, 이는 ㄱㄴ자형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는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어 광이나 임대공간으로 변모되었으며 이 곳에서 거주하던 남성은 안방이나 사랑방으로 거처를 옮겨 부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부터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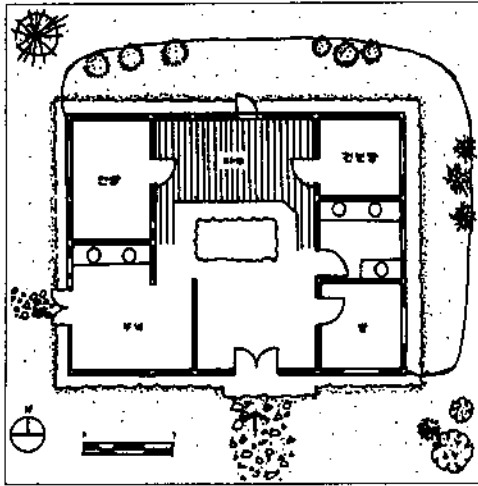


그림 4. G자 평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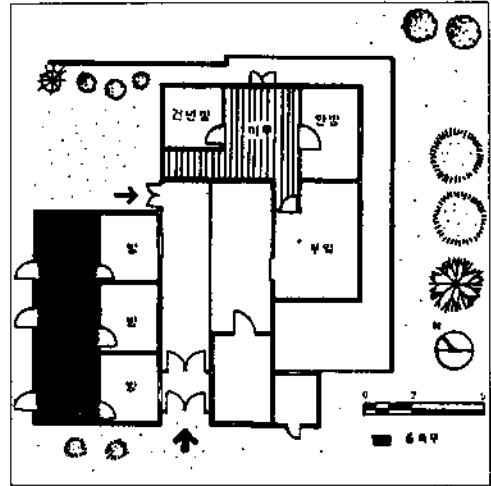


그림 5. 7자 평면유형

5) □자형

폐쇄적인 공간배치로 본채를 중심으로 전면의 바깥마당, 중앙의 안마당, 후면의 뒷마당으로 구성된 공간구조이다. 마루가 안채의 중심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다른 평면의 경우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건넌방 앞에 설치되는 아궁이 대신 별도의 부엌을 두고 그 아래에 사랑방을 배치하고 있다. 이때문에 안마당(中庭)은 상당히 좁게 나타나며, 사랑채가 없는 대신 문간에 설치된 사랑방을 남성이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내외분리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6) 평면 변화의 유형

① 외벽의 연장

방의 외벽을 처마선 또는 담장벽까지 연장함으로써 실의 면적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이 경우 0.9m~1.2m 정도의 폭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방 내부에 기둥이 노출되어 이용도는 상당히 줄어든다. 따라서 중축 부에는 보통 가구를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실의 분리

2칸 규모의 방을 분리하여 사방 1칸 규모 방을 2개로 만들고 그 앞에는 부엌을 새로 달아내는 방법이다. 이때 지붕은 기존의 처마선에서 연장되어 실의 높이는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 개의

방과 이에 딸린 부엌을 만들어 임대하기 위해서이다.

③ 안채와 사랑채의 연결

G자형 평면의 경우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안마당과 연결된 공간이 생기므로 이곳에 방을 들이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 발견한 예는 안채의 부엌과 사랑채의 사랑방을 연결하고 이곳에 방을 들인 경우가 있었다.

④ 안마당의 거실화

G자형 평면에서 생긴 안마당의 상부를 지붕으로 덮고 마당 위에 마루를 깔아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새로운 거실공간은 마루와 연결되어 상당히 넓은 면적을 거실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안마당 상부가 막히게 되어 채광에는 나쁘게 되며 실제로 내부공간은 낮에도 상당히 어두운 편이다.

7) 용도변화의 유형

① 영농의 기계화와 실의 용도변화

영농에 쓰이던 소가 기계화 영농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게 됨으로 인해 소를 기르던 외양간은 그 용도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공간은 다른 용도로 변용되며 주로 방을 새로 들이거나 팔로 쓰인다.

② 사랑방 기능의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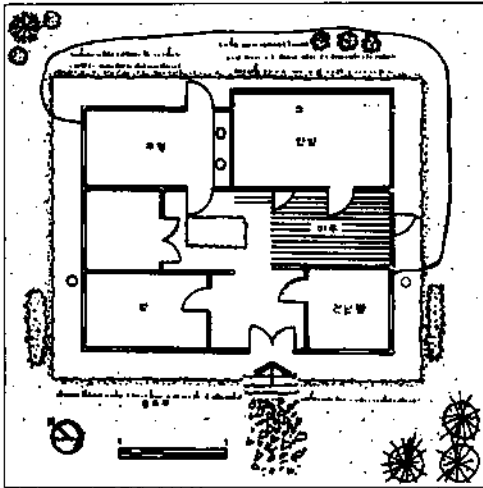


그림 6. □자 평면유형

남성공간과 여성공간이 분리되어 각각 사랑채와 안채를 사용하였으나, 현재 내외가 별도의 방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남성이 종래 여성공간으로 인식되던 안방으로 들어가고 용도를 상실한 사랑방은 세입자에게 임대하거나 광으로 사용한다.

8) 변화의 요인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부평지역 전통살림집 평면의 변화요인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2-3. 富平地域 살림집의 規模

1) 전체면적 상의 특징

대상 살림집의 전체면적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17㎡ ~ 108.9㎡로 다양한 면적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평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형(31.17㎡), ㄱ자형(47.2㎡~65.12㎡), ㄷ자형(41.51㎡~73.4㎡), ㄴ자형(55.09㎡~119.23㎡), □자형(54.28㎡~69.12㎡)이다. ㄴ자 평면의 경우는 같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면적 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평면유형별로 정리하면 <그림 8>과 같다.

2) 실별 규모 상의 특징

거주에 따른 주 공간인 방과 마루의 규모와 면적 비율 도표화 하면 <그림 8>, <그림 9>와 같이 나타난다. 방은 48.96㎡로 ㄴ자형의 평면에서 가장 넓게 나타나며, 12.1㎡로 ㄱ자형 평면에서 가장 작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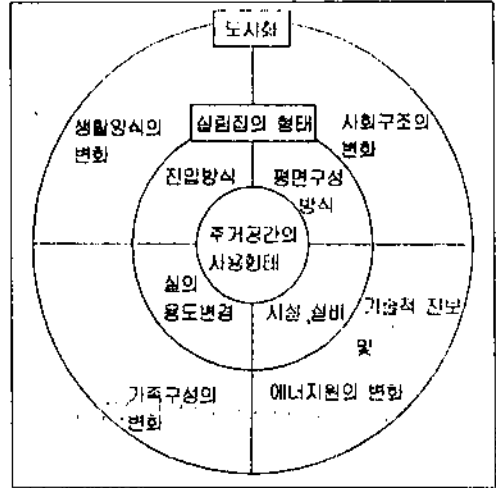


그림 7. 부평지역 살림집의 변화 요인

나타난다. 또한 마루는 48.96㎡로 ㄴ자형의 평면에서 넓고, 5.29로 □자형 평면에서 가장 좁다. 그리고 ■자형, ㄱ자형, ㄷ자형의 집에서는 광이 설치되지 않은 집도 있어 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富平地域 살림집의 特徵

3-1. 空間配置上의 特徵

부평지역 살림집의 평면유형은 ㄴ자형이 주류를 이루며 다음으로 ㄱ자형, ㄷ자형, □자형, ■자형의 순으로 적게 나타난다. 이처럼 ㄴ자형의 평면이 많이 발견되는 점은 부평지역에 형성된 대규모의 농지에서 산출되는 경제규모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평면별 공간배치는 유형별 특성과 더불어 본채를 중심으로 전면의 바깥마당과 후면의 뒷마당은 어느 유형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비교적 큰 규모의 살림집에서도 행랑채는 두지 않았고 사랑채가 이를 대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이후 서울 등의 대도시에는 개량한옥이 대량으로 세워지기 시작하고 생산방식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랑채의 기능이 점차 둔화되었다. 그러나 지리적인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사랑채 기능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평면유형별 각 실의 규모

평면유형	규모	총면적(m <sup>2</sup> )	실의 규모				
			방(m <sup>2</sup> %)	마루(m <sup>2</sup> %)	부엌(m <sup>2</sup> %)	광(m <sup>2</sup> %)	기타(m <sup>2</sup> %)
■ 자형		41.51	16.32/39.3	9.56/23.0	7.29/17.6	-	8.34/20.1
	┌ 자형	65.12	12.19/18.7	15.6/24	6.48/10	20/30.6	10.85/16.7
└ 자형		47.20	12.1/25.6	21.78/46.2	13.32/28.2	-	-
	┘ 자형	73.40	25.38/34.6	20.61/28.1	10.8/14.7	11.07/15.1	5.54/7.5
┌┐자형		41.51	24.76/59.6	6.25/15.1	10.5/25.3	-	-
		59.65	24.74/41.5	10.34/17.3	6.54/11.0	7.26/12.2	10.77/18.0
		65.09	33.18/51	18.06/27.7	8.82/13.5	4.41/6.8	0.62/1.0
		128.95	48.96/38	20.34/15.8	22.86/17.7	30.06/23.3	6.73/5.2
		107.45	34.58/32.2	25.04/23.3	9.75/9.1	22.2/20.7	15.88/14.7
		119.23	39.29/33.0	26.69/22.4	18.5/15.5	12.5/10.5	22.25/18.7
□ 자형		108.90	31.68/29.1	35.16/32.3	23.12/21.2	8.64/7.9	10.3/9.5
		69.12	25.52/36.9	17.92/25.9	12.75/18.5	4.41/6.4	8.52/12.3
		54.28	23.92/44.1	5.29/9.8	10.58/19.4	5.29/9.8	9.2/16.9

3-2. 平面構成上의 特徵

안채의 실 배치는 상이한 평면형태에 불구하고 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을 배치하고 안방에서 보를 꺾어 그 아래에 부엌을 달았다. 부엌은 다른 실에 비해 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부엌의 기능을 취사에 국한시키지 않고 수장기능도 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평면에 있어 마루와 부엌이 만나는 곳은 마루를 부엌으로 넣어 기능상의 편리와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루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우선 안마당과 뒷마당이라는 개방공간을 연결하는 반 개방적인 공간인 동시에 안방과 건넌방의 중간에 위치하여 動線의 分離와 組合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마루의 벽에 설치되는 壁龕과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祭禮行爲로 인해 마루는 神聖空間으로써의 役割도 갖게 된다.

3-3. 增·開築 要因과 形態

살림집을 변형하는 원인은 가족 구성원의 증가,

7) 유영희·윤정숙, 1930년대 이후 서울의 도시한옥 주 공간과 주생활의 변화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77호, pp. 52~54, 1996

세를 놓기 위한 경우인데 이 중에서도 후자에 속한 경우가 많다.

증축의 형태는 ① 외벽을 추너 끝까지 연장하여 실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 ② ㄱ자집에서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하여 새로운 실을 만드는 방법, ③ 기존 평면의 일부에 새로운 실을 달고 지붕을 연장시키는 방법, ④ 안채와 사랑채사이에 있는 안마당의 상부를 지붕으로 덮어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3-4. 構造上의 特徵

1) 架構形態는 대부분 1高柱 5檼이며, 이외에 平四檼構造, 2平柱3檼을 사용한 집도 있었으며, 처마높이는 2m내외이다.

2) 주초와 기단은 막돌을 사용하였으며 기단의 높이는 낮은 편으로 대부분 30cm이하이다.

3) 방의 천장은 철사불 30cm정도의 사각으로 엮고 그 위에 벽지를 발라으며, 마루나 문간의 천장은 회로 마감한 연등천장이다.

4) 벽 하부는 방화장으로 처리했고 상부는 시멘트 몰탈이나 회를 발라 마감하였다.

5) 지붕은 대부분 합각지붕으로 처리했고 마감재로는 시멘트기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초가지붕이었던 것을 1970년대에 전개된 새마을사업시 개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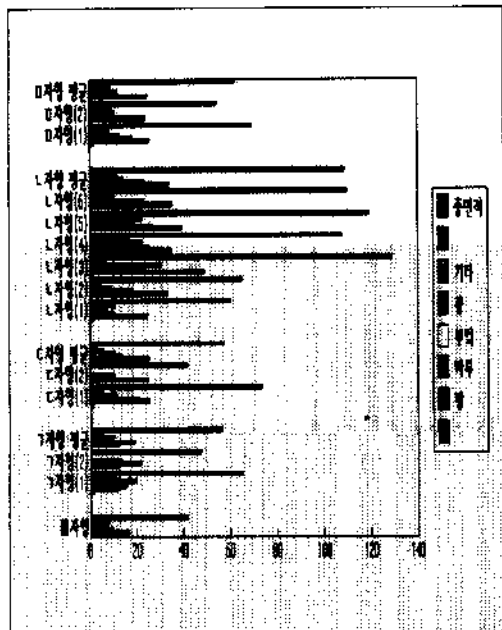


그림 8. 평면유형별 면적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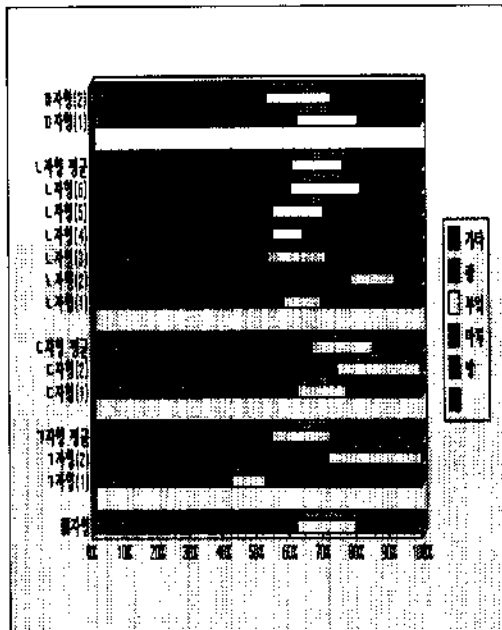


그림 9. 평면유형에 따른 실별 면적분포

#### 4. 結論

本 研究를 통해 富平地域 농촌마을 살림집의 平面 形態와 變化形態를 도출할 수 있었다.

부평지역 살림집의 공간배치에 따른 특징은 별도로 행랑채를 두지 않고 사랑채가 이를 대신하며 사랑채는 남성공간으로 중요시되었으나 최근에는 남성이 안방에서 생활함으로 인해 사랑방의 용도는 상실되어 가고 있다. 평면상의 특징은 상이한 平面 및 構造에 불구하고 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방을 배치하고 있으며, 평면이나 실의 용도는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構造는 일반적으로 막돌과 사각기둥이 쓰이나, 목재의 품귀로 가구에 사용된 부재는 다른 집을 헐어 사용하거나 작은 부재들 산에서 채취하여 사용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주거공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도시공간의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의식의 향상이 수반될 경우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보다 합리적인 공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 參考文獻 >

- 1) 인천광역시, 통계로 본 인천경제의 현주소, 1995.
- 2) 홍형욱, 한국주거사, 민음사, 1992.
- 3) 인하대학교 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굴포천 방수로건설구간 지표조사보고서, 1993.
- 4) 인하대학교박물관·인천직할시공영개발사업단, 계산택지개발사업지구지표조사보고서, 1994.
- 5) 인하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신공항고속도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994.
- 6) 유영희·윤정숙, 1930년대 이후 서울의 도시한옥 주거공간과 주생활의 변화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77호, 1995.
- 7)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88.

# The Study on Traditional Housing Space in Incheon

- focus on traditional housing in Pupyng Area after 1900s -

Hong, Se Pyo

(Inha Technical Collage Architecture Department, Assistant Professor)

## ABSTRACT

This study aims 1) to estimate the form of living house of pre-urbanization of Incheon, and 2) to ensure originality of to be achieve urban plan and living space plan which is base on local character by 3) arranging changed character of living space through the urbanization sequence by invest of house in natural village at Pupyung.

The character of arranging living space of house at Pupyung is placing Sarang-chae(husband's block of house) instead of making another Haenrang-chae (visitor's block of house) and Sarang-chae is attach importance to Man's living space but today, have disappearing the uses of Sarang-bang (husband's living space) because by Man lives An-bang(originally woman's space).

The character of plan is arranging room in both side of Maru(wooden living floor) in spite of different structure, and the uses of plan or room is changing to fit to purpose of according to environment of living.

Generally, the structure is made by natural stone and cubed column, and used smaller member cause by rare wood material.